

Post community dance의 공감 구조와 상담 기능

* 한혜리

목차	Abstract
	I. 서론
	II. 몸의 공명과 지식의 체화
	III. 공감의 자율성과 소통의 상담 기능
	1. 공감의 자율성
	2. 무용 소통의 상담기능
	IV. 결론
	참고문헌

* 경성대학교 예술종합대학 무용학과 교수

논문투고일 : 2022.08.03.

논문심사일 : 2022.08.09.

게재확정일 : 2022.09.09.

The structure of empathy and counseling through post-community dance

Han, Hea-ree · Kyungsook University

This study is to present the counseling function among the social functions of post-community dance. It explores the structure of dance empathy in the resonance between the body and embodied knowledge, and examines the empathy that arises from establishing relationships with others who pursue different beliefs and values, which is regarded as an act of publicizing the issues rais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ommunities and free individuals that enjoy free will and choice. The study describes the process of empathy, where connection and intimacy with a community with differences and diversity, and individuals' independence in society are recognized as self-esteem, as intercommunication through dance and choreography of the senses and self-expression skills. The embodied knowledge that is generated from the experience of that process is 'Yeokjisaji 易地思之 (Put yourself in someone else's shoes)' as a way of self-awareness and understanding of the other world. It refers to the potential that can be summoned at any time as knowledge possessed in the body, and shows the spontaneity and similarity of embodied knowledge that can be free from external control or rules. As a result,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autonomy of dance empathy, which discovers the context in embodied knowledge, can be defined as a function of dance counseling in the contemporary society that recognizes various communities where differences and variations exist and maintains intimacy with those communities.

〈key words〉 post community dance, embodied knowledge, dance empathy, dance counseling

〈주요어〉 포스트 커뮤니티댄스, 체화된 지식, 무용 공감, 무용 상담

무용은 자기표현의 기술인 춤을 도구로 시대사회의 역사적 전개와 함께 공동체 의식 행위에서 개인과 집단, 개인과 사회, 집단과 집단 간의 의사소통 행위로 사회적 기능이 확장되고 있다. 한 개인이 타인과 맺는 관계에는 환경과 목적에 따라 다른 행동 특성이 요청된다. 각각의 개인이 춤추는 몸으로 의사소통에 참여하는 무용의 영역에서 공감은¹⁾ 타인의 행동으로 신념과 가치를 이해하는 방법이다. 춤추는 몸이 표현 도구인 무용 영역에서 자기표현의 방법에는 자유의지와 선택의 자율성이 전제되어 있다. 이때의 자율성이 무용에서는 개성 혹은 개별성, 독창성으로 대치되어 사용된다. 이는 개인이 지닌 취향 혹은 독자적 성질로 이해되는데, 인류 진화과정에서 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경험적 지식이 체화되어 몸에 저장·기억되어 전승되는 meme²⁾ 과 같이 DNA와는 또 다른 유전자³⁾ 로도 언급된다. 체화된 지식으로서의 몸은 타인과의 차이와 동질성 그리고 다름과 다양성으로 해석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심리학의 영역에서 타인을 이해하는 방법으로서의 공감(empathy)⁴⁾ 은 무용 소통의 필수 요인이다. 따라서 몸으로의 표현 기술인 춤이 의사소통 영역인 무용에서 야기하는 공감은 몸의 공명共鳴을 감정언어로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무용에서 표현은 타인과의 소통을 위한 것이고 통제가 없는 표현의 자율성과 단정 없는 소통이 전제조건인 무용 소통은 상담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과제이다.

서로 다른 것들 간의 의논이 어떤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념의 상담은, 의사소통으로서의 춤이 갖는 표현기술로서의 공감(상상, 易地思之) 그리고 무용에 참여한 각기 다른 개별적 개인들이 같은 시간 동일한 소통 공간에서 자아인식을 기반으로 타인의 신념과 가치를 인정하고 이해 하는 그 기능이 발생한다.

¹⁾ Alison, L., 김두환 역, 2021 : 50.

²⁾ 1976년,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 유전자>에서 문화의 진화를 설명할 때 사용한 용어 밈meme은 한 사람이나 집단에게서 다른 지성으로 생각 혹은 믿음이 전달될 때 전달되는 모방 가능한 사회적 단위를 총칭한다 (<https://ko.wikipedia.org/wiki/%EB%B0%88> 참조)

³⁾ 유전자가 자가복제를 통해 생물학적 정보를 전달하듯이, 밈은 모방을 거쳐 뇌에서 뇌로 개인의 생각과 신념을 전달한다.

⁴⁾ 공감(empathy)은 1909년 미국의 심리학자 에드워드 티치너 Edward Tichener가 그리스어 empatheia 안 in 고통 suffering의 의미에 근거해 만들었다(Simon, R., 2020, 조은경 역, 2022:152).

본 연구는 20세기 후반 제기된 사회문제 해결로서의 커뮤니티댄스의 개념이 사회 계몽과 선도의 기능으로 정의되었던 시대 이후인 post community dance의 사회문제 해결의 기능 중 하나로 상담의 기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무용 상담은 자아인식 혹은 자존감 형성 과정인 자기표현 기술로서의 춤이 진행되는 동시간대 동일 장소에서, 독립적 개인의 몸들 간의 공명을 통하여, 표현된 개인들의 집합체인 다양성을 내포한 공동체가 자율적이고 개별적인 판단과 의지에 따른 자기 주도적인 문제해결을 체험하는 과정이다.

post community dance의 사회적 기능 중 하나인 상담의 기능 제시를 위하여 본 연구는 몸의 공명 체계를 체화된 지식에서 탐색하고, 다른 신념을 가지고 각각의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의지적 행동으로서의 공감은, 개인과 집단이 선택하고 추구하는 가치의 다름과 차이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공문화되는 시공간에서, 경험적 지식을 몸으로 기억하고 새로운 것을 마주할 때 두려움 없이 대처하는 즉흥성을 능력으로 보유하는 과정으로 그러한 과정의 경험이 상담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탐색하는 목차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선행 연구로는 “무용의 자기 성찰 기능과 구조”(2021a), “커뮤니티댄스의 집단성과 비경쟁적 구조의 상관성”(2021b), “동시대 커뮤니티 댄스의 개념과 공동체성의 의미”(2019), “소통미디어로서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의 작용연구”(2015),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에서 창의성의 의미”(2015), “생태환경사회 커뮤니티댄스에서 공동체와 전인교육의 의미”(2014a) “커뮤니티댄스에서 참여무용의 복합성 연구”(2014b)가 있다.

II 몸의 공명과 지식의 체화

공감(empathy)이 상대방의 신념과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라는 Alison, L.(김두환 역, 2021: 50)의 개념에는 대화의 기술과 방법이 다양해진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에게 직접 대면하는 기회가, 활자와 인쇄 매체 및 전자 미디어 매체로 대체 가능한 비대면 대화와 평등한 선택지에 놓여있는 시대사회 환경을 전제하고 있다. 전자미디어 시대에 무용에서 공감이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방식으로 몸의 공명을 단초로

하는 상상이다. 무용으로의 공감은 특별히 몸의 감각과 연결 지어 지는 데에는 체화된 지식 저장고로서의 몸이 기본구조로 존재한다. 역사 시대의 보편적 가치와 공통된 신념을 관습과 습관적 행위 등으로 계승하는 문화는 Dawkins, R.(1976)가 제시한 유전적 유리함에 우선하는, 모방 능력을 가진 뇌의 진화인 meme으로도 언급된다.

우리는 유전자를 전하기 위해 만들어진 유전자 기계이다. 그러나 유전자 기계로서의 우리는 3세대 정도가 경과하면 잊혀지고 말 것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세계 문화에 무언가 기여할 수 있다면, 예컨대 좋은 아이디어를 내거나, 음악을 작곡하거나, 점화 플러그를 발명하거나, 시를 쓰거나 하면 그것들은 우리의 유전자가 공통의 유전자 풀 속에 융해되어 버린 후에도 온전히 생존할지 모른다.(...)
종교, 음악, 그리고 제식 춤 등에는 생물학적 생존가가 있는지 몰라도 그것에 관해 판에 박힌 생물학적 생존가를 찾을 필요는 없다(Dawkins, R., 1976, 홍영남 역, 2006: 346. 347.)

과학적 혹은 사변적 지식 기록물들은 활자화된 인쇄물로, 현재의 전자 미디어 속 정보로 혹은 빅 데이터의 통계수치로도 저장되고 있다. 코드화 되어 인쇄물 혹은 전자 전기 매체에 저장된 지식을 이성적 지식 혹은 지식 정보로 분류하는 데에는 데카르트적 이원론의 시대가 배경이 된다. 지식 습득의 수단이 정신이라는 명확한 전제에서 이성은 몸에서 분리되어 있다. Robert, S.(2020, 조은경 역, 2022:52-3)의 설명처럼 빅 데이터 분석은 정신과 몸을 구분하는데 근거한 지능공학 중 하나이다. 즉, 몸으로의 경험을 통해 축적한 지식이 이론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몸에서 분리된 정신에 자리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몸에 대한 다른 개념을 제시하는 진화 생물학자 도킨스는 생물학적 유전자인 DNA와 다른 종류의 문화적 유전자 meme으로 체화된 지식의 전승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즉 경험 지식의 저장고 혹은 기억체인 몸과 체화된 지식의 계승을 연관 짓는다.

Descartes, R.(1637, 김선영 역, 2018:135)는 감각 주체로서의 몸이 정신과 육체의 이원론에서와는 달리 영혼과 몸의 결합체로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존재라는 이론을 제시하면서 ‘인간적 측면’이라는 설명을 첨가했다. 인간적 측면에서 “체화된 지식(embodied knowledge)이란 우리가 실용적 이해를 통해서 그리고 지각이나 경험을 통해서 얻은 능력으로 습득한 것을 말한다”(Robert, S., 2020, 조은경 역, 2022:14)⁵⁾.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인간의 본능으로 제시되기도 하는 체화된 지식은, 실천을 사변적인 것과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데카르트적 사고에서는 몸의 기억과 같은 습관

⁵⁾ “체화된 인지란 물리적인 신체(몸)와 맺는 관계의 맥락에서 정신을 이해해야 한다는 아이디어이다”(Robert, S., 2020, 조은경 역, 2022:15). 라는 서술도 함께 체화된 지식을 설명하고 있다.

으로 해석한다.

기억 저장소로서의 몸에는 생각이 내재하고 그 생각의 실체를 정신으로 그리고 장소, 모양, 위치 등 연장을 전제로 한 우연한 성질들의 직접적 주체를 물체로 지칭하는 이론에서는 몸과 물체의 정의로 정신과 행동의 분리가 분명해진다. 생각의 실체로서 정신의 발현은 결국 인간 행동으로 실천 되어 표현되는데 정신의 표현체에 내포된 항상성은 체화된 지식, 즉 습관과 즉흥성으로 또, 무용과 같은 생각과 감정의 비언어적 표현 영역에서는 선택과 자율성으로 분석된다.

개인의 독립성과 개별성이 의지적 행동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라는 주장은, 생각의 표현으로서의 무용이 인간의 개별성과 독립성을 대변하는 자기표현 기술 중 하나라는 예술론의 이론적 배경이다.

시대사회의 보편적 가치와 신념에 반하는 개인의 정체성은, 후대 다른 가치와 신념의 시대에 사회문제로 공론화되기 전 동시대 예술에서 표현되지만, 새로운 시대를 맞아 시대사회 가치에 대립되었던 개인들의 정체성이 사회 문제로 공론화되어 다양해진 시각으로 재조명되고, 재해석되면, 그 결과는 사회 문제 제기로 대립 및 저항 그리고 해결의 단계를 논리로 하는 개념어로 표현되어 기록된다. 결국 체험 지식은 효용성을 기준으로 한 이론 즉 이성적 지식에 대체된다.

Dawkins, C.(1976)의 meme과 Robert, S.(2020)의 '체험적 지식'의 저장 및 기억체로서 몸은 타인과 사물 그리고 현상을 이해하는 주체로, 공명을 시작으로 공감의 감정을 완성한다.

몸이 뇌의 기억 기능을 필수요소로 한다는 Dawkins의 몸에 대한 견해는, 진화론을 출발점으로 몸을 감각 기관으로 분석 탐구하는 최근의 심리학까지 몸의 기관 중 하나로서 기능으로 몸이 분석되는데 일조하였다. Robert, S.(2020)를 포함한 동시대 학자들에게 몸은 이해나 탐구의 대상인 동시에 감각하는 주체로, 시간의 경과로 경험하는 것을 통해 습득하는 것이 지식이라고 보고, 경험으로 습득한 지식은 경험의 주체인 몸에 체화되어 보유하게 된다. 체화된 지식의 습득과 보유의 과정은 몰입과 모방의 관찰 단계, 반복을 통해 습득하는 기술 연습의 단계, 새로운 것을 수용하고 이해하는 즉흥성의 단계로 완성된다. 체화된 지식 즉 지식을 보유한 몸에서 지식은 다시 불러 낼 수 있는 성질의 것으로 이러한 성질의 지식은 잠재력이라는 인간 본능의 영역으로 해석하기도 한다. 도킨스가 명명한 밈은 몸의 여러 기능 중 뇌가 가진 기억 능력이 생존가를 통해 전승되는 체화된 지식으로 경험적 지식인 동시에 실용적 지식으로 그것이 갖는 즉흥성이 낮은 것들과 대면할 용기를 준다.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세계인 오늘을 살면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들에 부딪혀도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와 힘을 갖게 한다.

적극적으로 체화된 지식을 발전시킬수록 불확실성에 더 잘 대처하게 되고 이해와 공감
을 바탕으로 세상을 보며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생각하고 느끼는 방식은 우리의 정신과 몸 환경과 경험사이의 상호소통에
서 생성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될 때가 왔다(Robert, S., 2020, 조은경 역, 2022: 30).

체화된 지식들을 보유한 몸은 감각의 주체로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 그리고 타인
과의 마주침에 먼저 반응한다. 이러한 반응으로서의 몸의 공명은 체화된 지식 즉 문
화와 같은 습관적인 행동이나 관습적 생각들(혹은 판단들)과 관계가 있다.

III / 공감의 자율성과 소통의 상담 기능

타인의 생각과 느낌을 진심으로 이해하려는 태도를 말하는 공감은 심리학에서
타인의 신념과 가치를 발견하려는 분석적 자세를 요구하는 반면, 무용에서는 ‘역지
사지易地思之’의 ‘~ 되어보기’의 관문으로 상상력을 활용한다. 자신과 다른 생각
과 태도에 대한 관대함이나 온정에 대치하여 Husserl, E.의 판단중지(epoché : 질문
을 보류하기)의 현상학⁶⁾적 관찰과 경험의 방식을 차용한다. 즉, 있는 그대로의 모습에
집중하여 상대방의 핵심 신념과 가치를 발견하려는 의지가 나 아닌 다른 것들을 이
해하는 데 ‘그 입장’이 되는 선행 조건이다.

1. 공감의 자율성

Alison, L.(김두환 역, 2021:81)은 “공감은 단정하거나 지시하지 않는 자세로 귀를
기울여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를 그저 자세히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상담에서 공감의 자세를 제시한다. 상호소통에 의해서만 발생하는 공감은
자신의 생각과 느끼는 감정에 확신을 갖고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로 요구된다.
즉, 공감은 자기표현 능력을 전제로 한 상호소통이다. 또한 그러한 자기표현의 기술

⁶⁾ “현상학은 체계라기보다는 우리가 보이는 대로의 일상적 사물에 면밀한 주의를 기울여 세상을 경험하는 방
식 그 자체입니다. 후설은 고대 그리스어로 ‘판단정지’라는 뜻의 에포케 epoché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무엇
이 진짜인가’ 같은 질문을 보류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Thomson, J., 최다인 역, 2021:230).

적 문제에 우선하는 것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에 대한 자기 인식이다. 이는 무용에서 자아 존중감 혹은 자아 인식의 용어로 제시되는데 무용으로의 자기표현은 춤이 기술이라면 자신과 마주한 것에 대한 관찰의 과정은 자기감정에 대한 확실한 인식이 발생하는 과정으로, 그 감정의 표현은 감정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감정을 야기 시킨 자신이 마주했던 것이 '되어보는' 상상의 과정으로 무용이라는 상징물로 표현된다. 그리고 무용은 각자 개인의 생각을 춤으로 상호 소통하는 도구로 개별적이고 자발적인 해석과 이해의 체계에서 공감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독립적 개인들이 신념과 가치를 상호소통 하는 공감이 필수 과정인 무용은 비 경쟁적 구도에서 독립적이고 개인적인 이해와 판단을 필요로 한다. 반면, 자기표현 기술인 춤은 공연(실현의 뜻인 performing)으로 소통하는 경쟁 구도에서의 무용은 위계성 혹은 보편적 지식의 기본 구조에서 다름 혹은 차이들을 온정이나 관용의 태도로 바라보게 한다.

Robert, S.는 인지적 공감은 타인의 관점에서 세상을 보거나 그들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해하면서 다른 사람의 관점을 취할 수 있는 능력으로, 정서적 공감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대해 타인의 감정적 반응을 인식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으로 공감을 두종류로 구분하고 개념화 하였지만, 애덤 스미스는 우리가 현재 공감이라고 여기는 것을 동정(sympathy)이라고 불렀다. 작가 Roman Krznaric이 주장하는 공감은 '상상력을 동원해 타인의 입장이 되어 보고 그들의 감정과 관점을 이해하고 그것을 당신이 행동할 때 지침으로 사용하는 행위로 생각할 수 있다(조은경 역, 2022:152)라고 공감의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무용 공감에서 자율성의 기초가 되는 것은 몸이 기억하거나 몸에 잠재되어 있는 체험과 지식들로, 마주한 것들을 이해하려는 과정에서 관찰되는 자신이다. 따라서 무용에서는 이 과정을 자아인식 혹은 자존감 형성의 단계로 분류한다. 무용에서 자아인식이 자존감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이유는 개별적이고 독립적 생각을 드러내는 그 자체로 가치가 부여되기 때문으로, 그러한 가치부여의 배경에는 개별자로서의 인간은 세상 어디에 있든지 독자성 자체만으로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다는 이데올로기가 있다.

존재 자체만으로 가치를 지니는 인간의 개별성은 다양성과 차이점이 드러나는 문화인식에서 확인된다. 개성 혹은 독창성으로 표현되는 무용에서의 유일성 혹은 창의성은 체화된 지식이 갖는 즉흥성과 유사한 경로로 발현된다. 체화된 지식을 예전과는 다른 낯선 환경에 적용하는 즉흥성 혹은 창의성은 동일한 것을 다르게 보고, 이해하고 해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 과정에서 차이점을 보기보다 공통점을 보는 기지가 문화적 연대감과 공동체의 결속력을 다지는데 유용한 능력이라면 타인의 독립성을 전제로 다른 세계를 이해하려는 의지는 다양한 사회가

공존하게 만든다.

“나는 누구인가? 자기 인식을 뒷받침하는 생각과 감정에 자신의 행동을 연결함으로써 자기인식을 갖추는 연습을 하자”는 Alison, L.(김두환 역, 2021:83)의 제안은 생각과 감정의 표현으로서의 무용은 결국 자아인식이며 자아인식이 공감의 첫 단계라는 주장에 동조해 준다. 각각의 개별성의 바탕이 되는 신념이나 가치관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는 무용 공감의 조건은 상대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에 영향을 미치는 단정 짓기나 통제가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강한 정서를 소유한 독립적 개인들의 집합체인 사회이다. 소통에 강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자율성인 근간은 독립적 인간의 기본 구조가 자신의 숙명을 결정하고, 또 자신의 운명에 책임지며 자신의 가치와 운명을 결정하고자 하는 자율은 인간의 본능이므로 인간의 성장 원리는 선택에 있다⁷⁾는 논리에 있다.

우리는 신뢰를 쌓고 싶기 때문에 솔직해야하고 이해하고 싶기 때문에 공감해야 하며 선택의 자유를 위해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Alison, L. 김두환 역, 2021:103).

상호간의 신뢰를 위한 솔직함은 독립적 개인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 행위인 춤을 도구로 또 다른 독립적 개인들과 소통할 때 서로 다른 자아를 인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친밀감의 내용이다. 그리고 상대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욕구와 바램을 존중하는 것으로 대면한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과도 일맥상통한다. 그것은 각자의 욕구와 바램 즉 그의 세계를 인정한다는 의미이고, 그 어떤 단정도 타율적 통제도 없는 현상학의 ‘판단정지’의 상태이며 무용에서 이러한 자율성의 존중은 상대의 나와 다른 생각과 마주했을 때 공감하는 자세 즉 그 입장이 되어보는 ‘易地思之’와 같다.

자율성이 내재한 무용 공감은 자신의 행동을 숙고하게 만들고, 다르고,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는데 열린 자세를 갖게 해 준다.

2. 무용 소통의 상담 기능

무용에서의 공감은 어떤 규칙을 적용한 통제나 단정된 지식의 관여가 없는 상태에서의 상호소통으로, 이러한 공감의 자율성에서 진행되는 이해는 경험적 지식을 생성하여 문서로 기록되어 저장되는 지식과는 달리 몸에 보유되어 언제든 적용할 수 있는 즉흥성을 지니는 체화된 지식으로 언어나 문자로 서술하기 어려운 성질을 지니고 있다.

⁷⁾ 성장의 가장 강력한 원리는 인간의 선택에 있다(George Eliot., 김두환 역, 2021:87).

독립적인 인간과 인간 사이의 상호소통은 다르고 낮은 것을 이해하려는 공감의 의지가 없으면 친밀하고 다양한 사회에서 공존할 수 없다. 따라서 post community dance 시대의 무용 소통은 다양하고 친밀한 공동체와 연결되어 있는 자아를 인식함으로써 심신의 안정감을 느끼는 데 가치를 둔다.

수동적인 의사소통은 직접적인 의사소통이 비껴가는 불신과 원망의 저류를 키울뿐이다.

현대인은 불편한 주제를 적절한 대화 기술을 쓰며 직접 대면하는 능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다.

과학기술이 우리가 화면 뒤에 숨을 기회를 주면서 나타난 결과다. 회피 관행은 조직이 상황을 직접 대응하고 해결하기보다 수동적이고 간헐적으로 대하려고 하는 태도를 말한다(Robert, S. 2020, 조은경 역, 2022:68).

타인의 기분을 감지하는 첫 단계는 공명으로 이때 공명의 주체는 감각하는 몸이다.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공감은 외부의 어떤 통제나 단정 등의 개입이 없는 자율성에서 진행된다. 무용의 상호소통의 체계에서 ‘易地思之’는 인지적 상태인 동시에 공명 즉, 몸의 상태도 야기한다. 따라서 공감적 소통은 상호가 되는 독립적 개인들이 물리적으로 함께 있어야 가능하고 이는 몸이 공감의 주체라는 확증으로 몸의 공명과 공감의 유사성도 함께 확인시킨다.

개인의 생각과 감정을 춤으로 표현하고 상호 소통하는 무용은 자아인식 즉,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성찰하는 과정이기도하다.

감정(emotion)이란 특정한 상황이나 사건에 반응해 몸 전체에 일어나는 신체적 감각을 뜻한다. 감정은 신체 내부의 화학 물질을 통해 생겨난다. 심장의 두근거림, 피부의 얼얼함, 가쁜 호흡, 뱃속의 울렁거림이 그 예다. 느낌은 이러한 신체적 감각들에 대한 심리적 해석이다.

마음에 존재하는 ‘주관적 인식’(subjective perception)을 통해 나타나는 느낌은 신체적 감각에 대한 정신적 느낌이라고 할 수 있다(Lembke, A., 김두완 역, 2022:344).

몸은 감각의 주체이자 이해의 근간인 감정의 근원지이다. 그러한 몸의 의도된 움직임이 춤이고 그 춤을 도구로, 생각과 감정을 상호 소통하는 것이 무용이라면, 무용 소통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감정을 이해하려는 의도로 몸의 공명을 시작으로 공감을 통해 상호소통한 것을 몸이 감각으로 기억하고 저장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감각적 기억이 체화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경험적 지식은 실용적 지식으로 자신의 변화를 의식적으로 유도하지 않아도, 다르고 또 다양한 차이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힘을 지닌다.

체화된 지식은 우리가 생각하지 않으면서 행동할 수 있게 하는 형태의 지식이다. 몸에 각인되어 있어서 우리가 아는 것을 의식적으로 반영하지 않으면서 얼마든지 행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이 하는 경험 그리고 몸이 실행하는 행동을 통해 습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지 않고도 체화된 지식을 발전시킨다. 우리 몸은 다른 사람의 의도와 감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이다(Robert, S., 2020, 조은경 역, 2022:78).

몸에 잠재력으로 보유하고있는 체화된 지식은 즉흥성⁸⁾으로 공감으로의 무용소통에서 '다양성의 포용'으로 가치를 발휘한다. 인간은 새롭고 낯선 것과 마주했을 때 두려움을 나타내고, 타인을 이해하는 일은 직접 관계를 맺으면서 이루어진다는 기본 구조에서 동시대 무용으로서 post community dance는, 각각의 독립적 개인들이 친밀하고 다양한 공동체에 연결되어 있다는 일체감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심신의 안정감을 준다는데 무용으로 관여하는데 가치가 있다.

직접 관계를 맺는 무용 소통은 나와 다른 독립적 개인들 간의 상호소통이 다른 세계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하고, 사람들 사이의 다름과 차이를 이해하려는 의지의 상호소통 경험이 지식으로 저장되어 보유되는데, 이러한 저장과 보유의 장소가 몸일 때 우리는 이러한 경험적 지식을 체화된 지식이라 지칭한다. 이렇게 각자의 개별적 몸에 체화된 지식이 무용 소통의 자율성 구조에서는 독창성으로 인지된다.

전 시대의 규칙에 의존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인간의 개별적 행위는 지식을 고정되어 있는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소통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는 시각에서 생성된다. 오늘의 무용 소통이 전 시대와 다른 것은 공감이라는 상호소통성에 있다. 통제나 단정이 없는 공감의 자율성은 결과가 아닌 전제로, 어떤 규칙이나 특정한 지식에 통제 받는 소통은 상호소통일 수 없다. 상호소통은 대칭적 관계에서 다름과 차이를 관찰·감각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체험적 지식을 바탕으로 춤을 표현 기술로 선택하고, 무용을 도구로 타인의 세계를 공감하는 것이다. '易地思之'의 무용 공감 방식에서 자아 인식은 필수 과정이며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는 첫 단계이다.

독립된 개별자들의 자기표현으로서의 춤은 상호소통을 전제로 한 것으로, 개별적 몸들 간의 공명을 통해 표현된 개인들의 집합체, 즉 공동체 속 개별자들의 생각과 감정의 표현체인 무용은 공감적 상호소통으로, 그 때의 자율성이 타인의 신념과 가치를 이해하는 요건이 된다. 무용을 통한 상호소통에서 몸은 체화된 지식과 기억의 보유체이다. 다른 신념과 그에 따른 각각의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는 공감은 자유 의지와 선택 그리고 자율성을 환경 조건으로 개인이 집단

⁸⁾ 즉흥성 : 체화된 지식은 실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용해 익숙치 못한 것을 다룰 수 있게 된다(28). 즉흥성은 즉각적 만남에서 자유롭게 가치를 만들어 내는 힘을 가졌다(Robert, S., 2020, 조은경 역, 2022: 28,128).

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공론화하는 과정이며 개별적 문제의 공론화에 참여하는 것은 상담과 그 기능이 동일하다.

IV 결론

post- community dance의 사회적 기능 중 상담의 의미 제시를 위한 본 연구는 몸의 공명과 체화된 지식에서 무용 공감의 구조를 탐색하고, 다른 신념과 가치를 추구하는 타인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공감을 자유 의지와 선택 그리고 자율성의 환경에서 독립적 개인과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가 공론화 되는 과정으로 보고, 다름과 다양성의 공동체와 연결되는 친밀성과 사회 속 개인의 독립성이 자존감으로 인식되는 공감의 과정을, 감각과 자기표현 기술의 춤 그리고 무용으로의 상호 소통으로 제시하였다. 그 과정의 경험에서 생성되는 지식은 자아 인식 그리고 다른 세계의 이해 방식으로서의 ‘易地思之’로 몸에 보유했던 체화된 지식은 언제든 소환 가능한 잠재력으로 외부의 통제나 오래된 규칙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즉흥성으로 기능한다. 체화된 지식에 맥락을 둔 무용 공감은 다름과 차이가 공존하는 다양한 공동체를 인정하고 그 공동체와 친밀함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무용 공감은 독립적 개인들이 집단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공론화하는 과정에 동참하는 것으로 무용 공감은 상담과 그 기능이 동일하다는 결과를 유출하였다.

연구 목차에 따른 개념 유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식 기억의 저장소인 몸은 감각의 주체로 새로운 사물이나 현상 그리고 타인과의 마주침에 반응한다. 이러한 반응으로서의 몸의 공명은 체화된 지식 즉 문화와 같은 습관적인 행동이나 관습적 생각들(혹은 판단들)과 관계가 있다.

무용 공감은 다른 세계를 이해하는 방법으로 그 입장이 되어보는 ‘易地思之’와 같다. 통제나 단정이 없는 자율성을 내재한 무용 공감은 자신의 행동을 숙고하게 만들고, 다르고, 다양한 것들을 받아들이거나 혹은 자신의 생각이나 마음을 바꾸는데 열린 자세를 갖게 해준다.

다른 신념과 그에 따른 각각의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타인과의 상호소통인 공감은 자유 의지와 선택 그리고 자율성의 환경에서 자유로운 개인이 집단과의 관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공론화하는 과정이며 개별적 문제의 공론화 현장에 동참하는 것이 상담과 기능이 같다는 논리로 post community dance의 상담 기능을 제시하였다.

참고문헌

- 한혜리(2021a), “무용의 자기 성찰 기능과 구조”,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2(3), 47-59.
- _____(2021b), “커뮤니티댄스의 집단성과 비경쟁적 구조의 상관성”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2(2), 59-74.
- _____(2019),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의 개념과 공동체성의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0(1), 121-134.
- _____(2015 a), “소통 미디어로서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의 작용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6(3), 51-68.
- _____(2015b), “동시대 커뮤니티댄스에서 창의성의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6(1), 5-21.
- _____(2014a), “생태환경사회 커뮤니티댄스에서 공동체와 전인교육의 의미”,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4), 1-16.
- _____(2014b), “커뮤니티댄스에서 참여무용의 복합성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 **한국무용교육학회지** 25(2), 61-76.
- Alison, L., Rapport, *The four ways to read people*, 김두환(역, 2021), **타인을 읽는 말**, 서울: 흐름출판.
- Dawkins, R.(1976), *The selfish gene*, 홍영남(역, 2006), **이기적 유전자**, 서울: 을유문화사.
- Descartes, R.(1637), *Discours de la methode*, 김선영(역, 2018), **방법서설**, 서울: 부북스.
- Horvath, Jared C. (2019), *Stop talking, start influencing*, 김나영(역, 2020),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배우고 기억하는가**, 서울: 토네이도.
- Lembke, A., *Dopamine nation*, 김두환(역, 2022), **도파민 네이션**, 서울: 흐름출판.
- Robert, S.(2020), *The power of not thinking*, 조은경(역, 2022), **뇌가 아니라 몸이다**, 서울: 소소의 책.
- Thomson, J., *Mini philosophy: A small book, of big idea*, 최다인(역, 2021), **필로소피 랩**, 서울: 월북.